

# 벨리즈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6.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4
IV. 국제신인도 .....	6
V. 종합의견 .....	7

## 벨리즈

### I. 일반개황

면적	23천 Km <sup>2</sup>	GDP	11억 달러(2005년)
인구	0.27백만 명(2005년)	1인당 GDP	3,977달러(2005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elize Dollar(BZ\$)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2.0(2005년)

- Hispanic계인 메스티조와 Afro-Caribbean계인 크리올이 총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GDP는 10.7억 달러, 1인당 GDP는 3,977달러임.
- 미국 및 유럽에 열대과일 및 설탕을 생산,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농산물의 작황 및 국제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제성장률	4.7	9.2	4.6	3.1	2.5
재정수지/GDP	-9.7	-10.8	-7.4	-4.5	-4.3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6	3.1	3.7	4.2

자료 : IFS, EIU

#### □ 2003년 이후 경제성장세 둔화

- 2003년에는 감귤, 바나나 생산량 증가, 농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9.2%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4년에도 농산물 수출증가 및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4.0%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5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폭 확대, 공공부채 누적 및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으며, 2006년에도 2.5%로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 □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해 재정적자 지속

- 1999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지는 매년 10% 안팎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음. 신규 세제 시행 지연 및 과도한 부채상환 비용으로 인해 동국의 재정적자는 2004년에도 GDP의 7.4%에 달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으로 2005년에는 GDP 대비 4.5%로 축소되었으며 2006년에도 GDP 대비 4.3% 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세

- 2BZ/US\$로 고정시킨 환율제도에 힘입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지

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3.1%, 2005년에는 3.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제조업 기반 미약 및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 벨리즈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이 수산물, 설탕, 감귤류, 바나나 등으로 1차 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여 자본재, 소비재 및 석유제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미국 및 영국으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미국 및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음.

### □ Caricom 회원국으로 대 EU, 대미 경제협력 강화 모색

- 벨리즈는 카리비안 공동체 Caricom의 15개 회원국 중의 하나로, 카리비안 국가들은 EU와의 경제협력 협정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2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미-Caricom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EU, 대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자국의 반미 정책의 일환으로 카리비안 국가들에게 장기저리의 자금 지원 및 저가의 석유 공급 등 각종 유인책을 펼치고 있음.

### □ 긴축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노력

- 미 달러화에 페그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 및 공공부채 축소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최근 잇달아 일어난 파업, 시위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벨리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과도한 부채 해결문제임. 지속적인 공공 부채 증가로 현재 총외채는 GDP의 100%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야기될 경우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차입조건 악화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힘입어 2005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5%로 2004년의 7.4%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었으나, 과도한 부채 규모에 따른 높은 이자비용 부담으로 2006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GDP 대비 4.3% 를 기록할 전망이다.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f
경 상 수 지	-183	-207	-182	-199	-209
경상수지/GDP	-19.7	-21.2	-17.6	-18.5	-18.8
상 품 수 지	-187	-207	-174	-189	-219
수 출	310	316	307	333	355
수 입	497	522	481	522	574
외 환 보 유 액	107	76	39	63	
총 외 채 잔 액	834	1,058	959	975	972
총외채잔액/GDP	90.0	107.9	92.6	90.8	88.4
D . S . R .	51.3	39.6	31.9	26.7	25.8

자료 : IFS, EIU

#### □ 상품수지 만성적인 적자기조 지속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4년에는 농산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적자액이 1.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2005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액이 1.9억 달러로 다시 확대됨.

####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2002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20%에 달하는 등 대규모 적자 추세를 지속해 왔음. 200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감소하고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비용 및 다국적기업들의 과실송금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17.6%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18.5%로 확대됨.
- 벨리즈는 농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적자 보전을 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증가, 부채상환부담 지속으로 인해 2006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8.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과중한 총외채규모

- 2005년 총외채는 9.7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90.8%에 달하며 2004년의 92.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중한 상태이며, D.S.R도 2004년 31.9%, 2005년 26.7%로 다소 높은 편임.
- 벨리즈 정부는 2005년 베네수엘라 및 타이완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지난 5월 베네수엘라가 벨리즈정부에 25백만 달러, 15년 만기의 외채상환용 자금을 지원해 준 바 있음. 또한 IDB로부터의 40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음.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무사 총리 지지기반 약화

- 벨리즈는 17세기 이후 영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식민지가 되었으며, 1973년에는 국명을 '영령 온두라스'에서 '벨리즈'로 개칭하였고, 영유권을 주장해 오던 과테말라와 영국 등 3개국 회담의 결과 1981년 9월 독립함.
-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여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음.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12명의 선임의원, 하원은 5년마다 보통선거에서 선출되는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3년 3월 국민연합당(PUP)의 무사(Said Musa) 총리가 재취임 하였으나, 2006년 3월 지방선거에서 PUP가 야당 UDP에 대패함에 따라 무사 총리의 입지가 약화됨. 정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현 정부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조기 선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함.

#### □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문제 해결 실마리

- 벨리즈와 과테말라는 그간 지속된 양국간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2002년 5월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6월 무역조약을 체결하여 투자 및 육상교통수단 보호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양국간 지속적인 통상 증진을 통해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함.

#### □ 범죄 퇴치 등을 위한 국제적 지원

- 영국 및 미국으로부터 마약, 돈세탁, 강력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동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반미국가로 전향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2002년 빈곤 평가보고서에서는 벨리즈 국민의 10.8%가 극빈층으로 집계되었으며, 33.5%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음. 특히 남부 톨레도 지역의 빈곤율은

79% 증가하는 등 동국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미의 마약 운송루트로 이용됨에 따라 최근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금년 6월 미국은 벨리즈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 3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벨리즈 정부는 인신매매 및 인권유린 범죄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 OECD: 7등급(05. 6) → 7등급(06. 6)
- o Moody's: Caa3(05.10)
- o S&P: CCC-(05.6) → CC (06.8)

- 금년 8월 S&P는 동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외채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CCC-등급에서 CC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2. 외채상환태도 및 대외지급능력

###### □ 대외지급능력 약화

- 동국은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현재까지 외채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인해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90.8%인 9.7억 달러에 달하여 정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국가신용등급이 연속 하락함에 따라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



## V. 종합 의견

- 중미의 소국이며 농업국가인 벨리즈는 농산물 수출 호조 및 관광산업 수입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금년 3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야당에 대패하고, 최근 파업,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여 향후 정부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수년간 대규모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동국의 채무 부담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문의 : 전문연구원 양행민 (☎3779-6676)

E-mail : haengmin@koreaexim.go.kr